

경남신문 > 경제

동부저수지서 경남본부 대표 행사

농업용수 공급·물관리 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6-04-20 08:09:54



지난 17일 거제시 동부저수지에서 열린 '2026년 경남지역본부 대표 통수식'에서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과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지난 17일 거제시 동부저수지에서 '2026년 경남지역본부 대표 통수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물길을 여는 행사로, 이 자리에는 주영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를 비롯해 경남도·거제시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동부저수지는 총 저수량 89만㎥ 규모로, 216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현재 동부저수지를 비롯한 거제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올해 영농기에도 원활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는 기념사에서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으로 농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예측·수급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여 보다 정교한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희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영농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철저한 시설 안전관리와 빈틈없는 용수 운영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